



2018년 7월 15일(제884호) 연중 제15주일(농민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목적”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도 다 이유와 목적에 따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목적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배를 채우고 영양소를 흡수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는 이유 역시 호흡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불필요한 공기를 내뿜음으로써 삶을 이어갈 목적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일을 행할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생각,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삶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오늘 독서와 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제1독서에서 아모스 예언자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예언하여라.”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나무를 가꾸고 양 떼를 몰고 가던 아모스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선택되었고, 그에게 주어진 예언직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독서에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으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어 그 신비란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 데 모을 계획임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그들에게 당신의 권한을 주시고, 들씩 짊어와 파견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따라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혹은 목적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꾸고 가축을 치던 아모스 예언자가 선택되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신앙인들 역시 하느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서 회개를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삶의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나오듯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사의 마지막에는 항상 사제의 입을 통해 하느님께서 신자들을 파견하십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미사 때 항상 파견을 받는 우리 모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전희성(새레지오원) 신부  
중령 103위 성인(육군 37사단) 상무 주일

### 제 1 독서 회답송 제 2 독서 복음 환호송

아모 7,12-15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에페 1,3-14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 복음 영성제송

마르 6,7-13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김계완 시몬



성인명: 김계완 시몬 (金啓完 Simon)

신분: 복사, 약재상, 순교자

활동연도: ?-1802년

‘백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김계완(金啓完) 시몬은 한양의 양인(良人) 집안에서 태어나 약국을 운영하며 생활하였다. 그는 1791년에 최필공 토마스에게서 천주교 서적을 얻어 본 뒤, 그 타당한 교리에 이끌려 입교하기로 결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창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해에 일어난 신해박해로 체포되었다가 마음이 약해져 석방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시몬은 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신앙을 회복하였다. 또한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1794년 말 조선에 입국하자 동료들과 함께 주 신부의 거처를 마련하는 데 힘썼고, 동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교리를 연구하였다. 그는 종종 주 야고보 신부를 방문하여 성사를 받거나 그의 복사가 되어 교회 일을 도왔다.

1800년 12월경 최 토마스가 체포되자, 김 시몬은 김연이 율리아나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이듬해 초에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신자들의 문초 과정에서 우연히 그의 이름이 튀어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포졸들은 사방으로 그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그는 김 율리아나의 집을 빠져나와 이곳저곳으로 피신해 다녔다. 그러는 가운데, 김 시몬의 늙은 아버지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또한 김 시몬도 가족들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로 다니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이윽고 문초와 형벌이 시작되자, 김 시몬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깊이 믿어 온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비록 늙으신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께 대한 효보다는 천주께 대한 효가 더욱 중요하므로 아버지를 돌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문초가 계속될수록 김 시몬의 신심은 더욱 굳어져만 갔다. 관장과 형리들은 ‘더욱 굳게 교리를 실천하기로 다짐하였다.’고 진술하는 그를 보면서 어안이 병병할 뿐이었다. 이후 그는 형조로 압송되었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문초와 형벌을 받은 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 새남터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2년 1월 29일(음력 1801년 12월 26일)이었다.

###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별을 쫓는 사람들



별 하나만을  
마음에 두고  
하늘을 보는 사람들

별 하나에  
희망을 두고  
생을 사는 사람들

별 하나에  
방향을 잡고  
길을 나선 사람들

우리는  
별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베영길

상화이야기

성스테피노 성당

바바리아 지방은 독일 남부지방을 일컫는데,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이곳은 더욱더 공고히 가톨릭을 고수하고 보호하게 되었고,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바로크 예술이 흥미롭게도 이곳에서 건축적으로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보게 된다.

이 당시 바바리아 지방의 성당은 환하고 화려하며, 자연에서의 모티브를 충실히 가져와 더욱 발전시켰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조각이며 회화이고 또 건축물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극사실적이며, 지상과는 현저히 동떨어진 완벽하리만큼 놀라운 천상의 공간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성스테피노 성당(1693 완공), 피사우

지금 보이는 성당은 군인이자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파노 성인에게 헌정된 파사우 지방 성당의 천장을 찍은 모습인데 유기적 동물의 척추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며, 조각과 회화, 건축물 및 창으로 들어오는 빛들이 서로 혼재되어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천상인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공간을 창조하였다.

김은혜(엘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5주일 : 천상대 인생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및 교구청 축복식  
 때 : 7월 15일(주일) 11:00 미사 후
- 가톨릭의료협회 한일운영위원회  
 때·곳 : 7월 20일(금)~21일(토), 일본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